

理事 徐廷達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아오던 탐라국인 제주도.

많은 時間과 季節을 보내면서도 잠자리모양 한 곳에 억매어 一人五役의 나의 日常生活을 果敢하게 접어 놓고서 濟州島를 다녀 온다는 생각 自体를 實感하게 느끼면서도會長任을 代行해서 11월29일 慶南支部와 11月 30日 濟州島支部 總會를 참석키 위하여 11月 28日 午後 2時와 3時 두쌍의 主禮를 끝마치기가 바쁘게 高速버스便으로 4時 20分에 서울을 出發 釜山으로 달렸다. 釜山서 다시 택시에 몸을 담고 馬山市에 도착하니 밤12時 15分前이었다.

其翌日 11月 29日 慶南支部 總會에 參席, 白南辰支部長 開會로 代議員 選舉와 監事選舉가 끝나니 時間은 벌써 3時 20分이었다.

慶南支部 會員들의 여러가지 建議事項등을 듣고 다시 釜山으로 향했다.

술로 有名한 馬山, “오동주 술 타령이 오동동이냐”하는 노래가락이 귓전에서 맴돌다 가면, 이번엔 馬山 앞 합포라 바닷가를 멍히 바라 보노라니 문득 이 고장이 낳은 詩人 이은상氏의 “가고파” 名曲의 產地라고 생각하니 더욱 이 고장의 친밀감이 더해진다. 11月 30日 아침 9時 40分.

釜山 水營飛行場 활주로를 벗어나는 육중한 비

행기의 窓밖으로 밝은 아침 햇빛을 받으며 窓밖으로 視線을 던져 놓은 나는 너무나 감격한 自然의 美에 도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 부시는 찬란한 저 푸른 바다와 山野들이 이처럼 아름답게 느껴 보기란 지금이 처음이다.

그 옛날 어린 學窓時節, 地理時間의 갖가지 추억들을 되새겨 보면서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水平線 위로 아득히 바라 보이는 족베기 漁船들과 海路를 신비하게 바라보노라니 大自然과 人間의 對比가 너무나 遠大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自然은 곧 慈悲가 아닌가 생각해보니 어느듯 下界에는 흰구름으로 가득한 雲海의 世界로 비행기는 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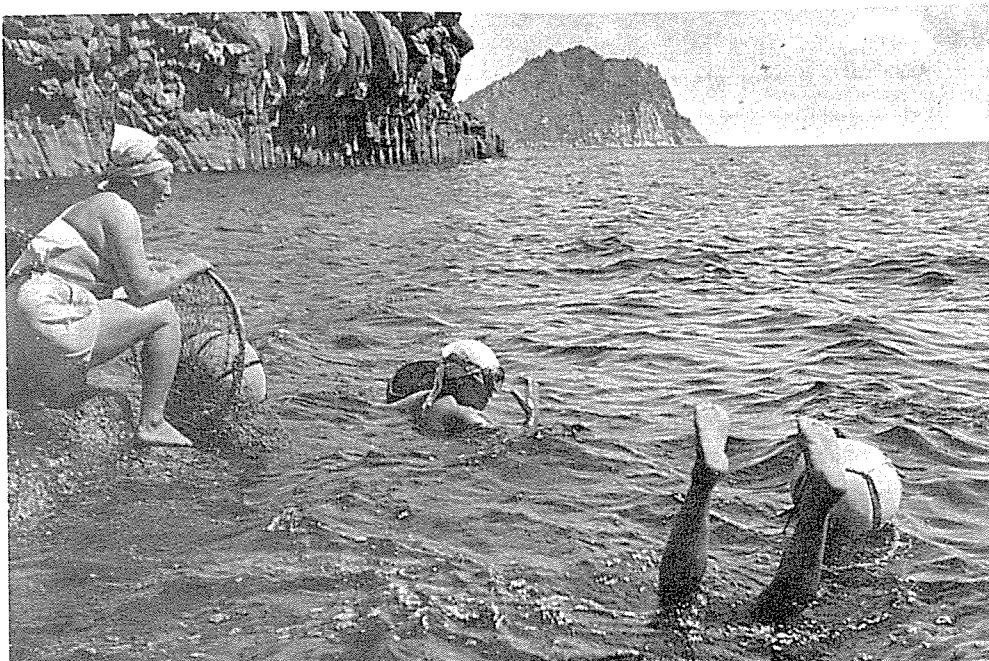
그것은 너무나 황홀했고 신비의 극치였다.

얼마 후, 질펀한 하얀 구름 밑 사이로 폭음을 울리며 나르든 비행기의 창밖으로 제주도 연안의 풍경이 선히 視野에 안겨 든다.

海風에 검게 탄 굴굴한 海女들을 연상하면서 땅 바닥에 납작히 주저 앉은 듯한 草家 지붕과 스텔트 지붕과 돌담들이 점점 확대되어 온다.

사나운 바닷바람에 도사리고 앉은 草家지붕들, 돌만으로 수없이 城壁을 쌓고 쌓은 이 신비로운 이방인의 視野.

石多의 表情은 마치 우리네 정신 신경처럼 제주



점 전체를 관장하는 척추인양 그 수다한 신경으로 이어져 있는 生動하는 섬같은 느낌이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時計는 午前 10時 10 分이었다. 2時에 있을 濟州道支部 總會에 참석하기는 아직도 서너 時間의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나는 市街地 구경에 나섰다.

高層建物이라곤 6層의 建物이 단 하나뿐인 제주도의 市街地.

그것은 너무나 平面的이며 신비하리만큼 모양새 없는 그 술한 구멍 뚫린 돌과 돌.

그러나 陸地에선 도무지 느껴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안정감은 陸地人들의 좋은 安息處임에는 틀림이 없으리라.

濟州 10景의 하나인 沙羅峰에서 내려온 나는 탐라국 태초의 조상이 나왔다는 “三姓穴”을 둘러 보니 나의 상상과는 180度였다. 이제까지만 해도 어느 산 중턱에 방공호 마냥 큰 구멍이 여기 저기 뚫여 있겠지? 했던 것이 막상 이 신비의 현장에 서고 보니 너무 싱겁다.

평퍼짐한 평지에 움푹 파인 잔디에 쥐구멍 하나 볼 수 없는 이 三姓穴.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전설의 발자취인들 현적을 간신히 알아 볼 정도로 나는 시선을 끈다.

전설이란 묘한 매력을 지닌 것인지 오늘날 그의 후손들은 每年 세번씩의 차례를 올린다는 것이다.

봄의 춘제는 4月 10日에, 가을의 추제는 10月 10日에 그리고 혈제는 12月 10日이라고 한다.

탐라국의 조상인 이들 세 선인은 어느날 바다를 건너 온 세 사람의 처녀를 각각 아내로 맞아 후손들을 번성케했다는 高氏, 良氏, 夫氏의 始祖가 출몰한 이 삼성혈의 땅 속에서는 자주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이는 법이 없다는게다.

아마도 여기엔 깊은 동굴로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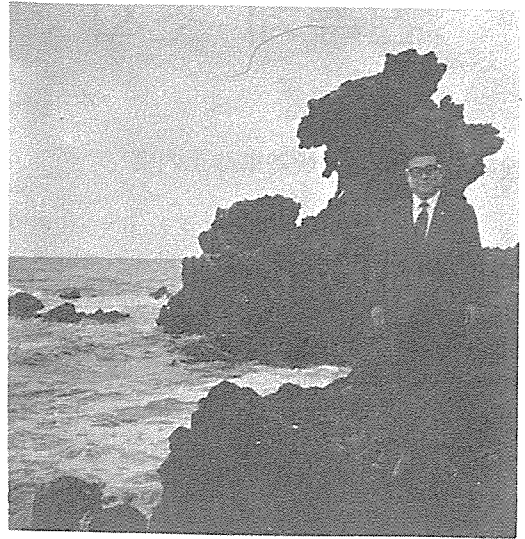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삼성혈을 파헤쳐 동굴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후손들이 없어진다는 게다.

20세기의 과학문명이 이러니 저러니하고 떠들던 그자들도 이 자리에 서면 절로 자신도 모르게 엄숙해진다.

어떤 老婆는 여기와서 합장 재배를 하고 간다.

이런 광경은 한라산정에서 천길이나 가라 앉은



海岸地帶에 이르기까지 湧泉의 폭포수와 湧出한 갖가지 奇岩들을 대할 때마다 自然의 神秘性에는 나도 모르게 엄숙해진다.

방금이라도 괴성을 지르며 하늘을 향해 치솟으려고 꿈틀거리는데 십여척의 龍頭岩을 등지고 여기 저기서 겨울 나그네들이 기념촬영을 한다.

이곳을 龍의 놀이터라 하여 龍淵이라고 하는데 여름밤에 이곳에 배를 띄우고 風流客들이 모여 술과 노래와 춤을 즐긴다는 龍淵의 秘景은 天下 一景이리라.

이 龍淵의 깊이는 4~5m나 된다고 하며 이곳만이 맑은 地下水가 솟아 淡水魚들이 서식한다고 한다.

그 옛날 頂上의 분화구에서 뿜어 내던 地熱의 熱氣를 느끼면서 나는 마치 달에서 月石이나 取하듯 龍의 비늘인냥 몇조각의 岩石을 찍어내여 손에 들었다.

家寶처럼 이 岩石을 두고두고 나는 熱氣의 대변자가 되리라.

짧은 旅程日에 傳說많은 이 고장을 떠나자니 큰 보물을 그냥 두고 가는양 아쉽기가 한이 없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을 자위하면서 濟州支部 總會 참석, 集會가 끝나자 그 사이 山積한 나의 業務에 조바심은 굳게 만류하는 인정의 손길을 뒤로 두고 歸路의 方向을 찾는다.

“이 다음은 가족들과 함께 폭... 쉬었다 가리라고.”

「西歸浦 70리에 물새가 우는구나……」